



1981년 2월 25일	1990년	2000년	2002년	2002년 7월	2005년 7월 14일	2006년	2008년 5월	2010년	2012년 7월	2014년 5월 14일
전남 고흥 점암면 출생 신안초 2학년 수원 이주	세류초교 4년때 축구 시작	명지대 입학	한일월드컵 대표팀 (포르투갈전 1골)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 입단	잉글랜드 맨유 이적 에인트호벤 임대	독일월드컵 대표팀 (프랑스전 1골)	맨유 챔피언스리그 우승	남아공월드컵 대표팀 (그리스전 1골)	잉글랜드 QPR 이적	은퇴 기자회견

두개의 심장으로 한국 축구 새역사 쓰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한국 선수 첫 득점, 한국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이상 2005년), 아시아 선수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2007년), 아시아 선수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2008년).... 박지성이 유럽 무대에 남긴 깊은 발자취다.

어느 하나 특출난 구석 없이도 성실성 하나만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도약한 '산소탱크'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자랑이었다. 박지성의 존재는 한국 축구가 오욕의 월드컵 본선 도전을 종식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

특히 유럽 최고의 팀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상은 한국을 넘어 '변방'에 머물러 있던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였다.

그러나 박지성이 걸어온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박지성은 1981년 2월 25일 고흥 점암면 신안리에서 태어나 신안초등학교 2학년때 아버지(박성중) 사업관계로 수원으로 이사 했다. 세류초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박지성은 6학년 때 '유망주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차범근축구상(5회)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수원공고를 졸업할 때까지 그에게 눈길을 준 대학팀은 없었다.

몸집은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기에는 너무 예소해 보였다. 발은 평발이어서 조금만 뛰어도 쉽게 피로를 느끼곤 했다.

박지성은 자서전에 "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

'영원한 캡틴' 박지성 은퇴 선언

작은 체격·평발 약점 성실함으로 극복

2002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결승골

에인트호벤·맨유 거치며 최고 전성기

고질적 무릎 부상... 25년 선수생활 마감

의 조건을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고 썼다.

당시 수원공고를 이끈 이학중 감독의 추천으로 1999년 가까스로 명지대에 입학하면서 박지성의 축구 인생에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대학 1학년 때 최정우 감독이 이끌던 올림픽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행운을 누렸고 이를 발판으로 그해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한다.

그리고 대망의 2002 한·일 월드컵. 박지성은 향후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거소 허딩 감독의 지도 아래 활활 날아올랐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탈락시키는 결승골을 터뜨려 세계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해 교토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사상 첫 일왕배 우승컵까지 선물한 박지성은 허딩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03년 초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입단한다.

그리고 2년 6개월 뒤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인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유니폼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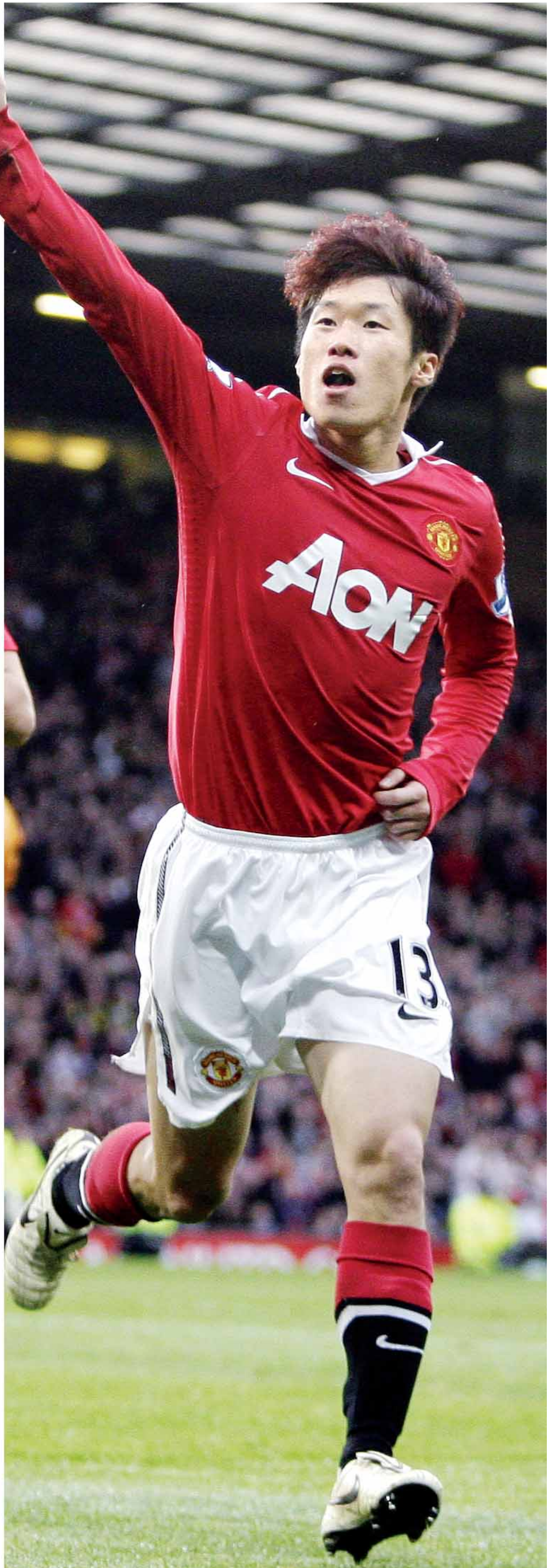
확장시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갈고 닦았던 체력과 활동량은 그가 맨유에 안착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맨유 팬들은 그에게 '세 개의 페를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맨유에서 7시즌동안 총 205경기를 뛰면서 27골을 넣었다. 맨유가 1878년 창단한 이후 134년간 개인 통산 200경기 이상을 뛴 선수는 박지성을 포함해 92명뿐이었다.

찬란한 전성기를 보낸 유럽에서도 시련은 있었다. 에인트호벤 시절 오른쪽 무릎 반월형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은 박지성은 2007년 4월 연골 재생 수술을 받고 9개월간의 재활을 견뎌야 했다.

2012년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 입단해서는 팀의 조직력이 붕괴된 상황에서 홀로 분투했지만 연봉만 많이 받는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올시즌을 앞두고 유럽 진출 팀이었던 에인트호벤으로 돌아간 박지성은 어느새 고질적 된 무릎 부상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은퇴를 결정했다.

그가 축구를 시작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24년 만의 일이다. /연합뉴스



■ 일문일답

“지도자 계획 없어... 한국 축구에 보탬될 것”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 드리고 보답해야 할 지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수놓았던 현역 시절을 마감하고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는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박지성은 14일 은퇴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는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릎이 다음 시즌을 버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도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행정가를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목표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 한국 스포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준비하겠다. 그때까지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성 선수와의 일문일답.

- 은퇴를 결정한 시점은.

▲ 은퇴를 생각한 시점은 올해 2월인 것 같다. 무릎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에인트호벤에 가서도 바로 4개월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앞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수술을 하면 다음 시즌에 경기를 할 수는 있지만 회복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100% 완쾌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확신이 들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다. 남은 선택은 은퇴밖에 없었다.

- 에인트호벤에 임대 연장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은퇴 과정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 내가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에인트호벤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 어떤 선택을 내릴까에 대한 얘기를 나는 적은 없다. 내 상황을 설명했고 구단도 이해했다. 퀸스파크 레인저스(QPR) 구단주와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내 의사를 표현했다.

임대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

- 홍명보 감독이나 이영표처럼 지도자나 행정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

▲ 지도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지도자 자격증도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외의 축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가를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목표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 한국 스포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공부해야 할 것이다.

-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후배들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의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부상 조심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연합뉴스

■ 향후 계획

7월 25일 고별경기... 결혼 후 유럽서 지내며 미래 구상

박지성(33)이 25년간의 전역 집주를 끝냈다. 이제 그 앞에는 제2의 축구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박지성은 일단 6월과 7월 두 차례 자선경기를 준비하며 현역 시절과 다른 바쁜 나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6월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글로라 봉카르노에서 자선 경기인 '아시아인 드림팀 2014'를 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박지성은 유명 초청 선수들과 팀을 이뤄 인도네시아 올스타팀과 대결한다.

7월25일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추모 경기를 연다. 박지성이 그라운드에서 마지막으로 뛰는 고별 경기이기도 하다.

박지성은 이 경기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세월호 희생자와 관련된 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틀 뒤에는 서울 W호텔에서 김민지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박지성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은퇴 이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지를 두고 고민중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단짠' 이영표처럼 행정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자나 축구 해설가가 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박지성은 “행정가를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 한국 스포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해 행정가를 목표로 당분간 학업에 뜻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박지성은 이미 2012년 모교인 명지대에서 체육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상태다.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곳곳에서 열려온 아시아인 드림팀 역시 축구 행정가가 되기 위한 발판이다.

지난 10여년간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데다 영어에도 능통한 박지성이 행정가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 축구 외교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일단은 해외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